

일제강점기 백양사의 제주불교 활동과 의의

한금순*

• 목 차 •

- I. 머리말
- II. 백양사의 제주도 포교소 설치
- III.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제주불교 활동
- IV. 백양사 포교사의 제주불교 활동
- V.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제주불교 활동의 의의
- VI. 맺음말

* 제주대학교 사학과 외래교수.

© 『大覺思想』 제41집 (2024년 6월), pp.205-241.

한글요약

일제강점기 제주도에 31본산의 여러 본사에서 제주도 포교소를 설치하였다. 백양사는 제주도에 가장 많은 포교소(26개소)를 설치하고 활동했던 본사 사찰이다. 본사와 말사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행정구역을 토대로 설정되고 있던 전국 상황과 달리 전라남도 소속 제주도에 是 경상도, 충청도 등지의 포교소도 설치되었다.

1924년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설치 是 1918년 제주법정사항일운동이 거행되면서 이후 6년여 제주불교 활동이 정지되는 일제의 통제를 타개하여 제주불교 활동의 물꼬를 텃다는 의미가 있다. 1924년 백양사 제주포교소 원당사와 무관암의 설치 이후 본사 백양사는 제주도 사찰에 포교소 건축비 지원, 포교사 파견과 본사 주지의 방문 등으로 제주도 포교소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신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법회 활동도 증가되었으며, 제주도 전역에 백양사 포교소가 증가되어 갔다.

1936년 심전개발운동 시기에는 백양사 포교사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강연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일선 등의 백양사 포교사가 1939년 제주불교연맹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주불교의 사찰 건립 및 신도의 증가, 법회 개설 증가라는 결과로 근대 제주불교의 활성화에 힘이 되었다. 1943년 백양사는 26개 소의 제주도 포교소를 제주도 본도 12개면 중 11개 면에서 사찰을 운영하였다.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 활동은 근대 제주불교 활동의 부흥기를 이워내는 업적이었다.

주제어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 대흥사 제주도 포교소, 원당사, 관음사, 무관암, 제주도 심전개발운동, 백양사 포교사, 송중헌, 이일선, 근대 제주불교 활성화

I. 머리말

일제강점기 제주도는 사찰령에 의한 본사 사찰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었다. 이에 31본산의 여러 본사에서 제주도 포교소를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 제주도에 가장 많은 포교소를 설치한 본사는 백양사(26개 포교소)이다.

31본산은 전국을 31개 교구로 나누었던 제도로 대체적으로 행정구역을 토대로 교구가 설정되어 본사 말사로 관리되었고, 본사 주지는 총독의 인가, 말사 주지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정해졌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전라남도 대흥사, 전라북도 위봉사 등이 백양사 다음으로 많은 포교소를 제주도에 설치하는 본사였고,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전라북도의 실상사와 충청북도의 법주사, 경상북도 기림사 등도 제주도에 포교소를 설치하여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 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한 것은 대흥사 제주도 포교소인 관음사이다. 제주도 사찰 중 조선총독부의 조선사찰 설립 첫 허가는 1918년 관음사이다. 관음사 승려들은 1924년의 제주불교협회, 1939년의 제주불교연맹 활동을 주도하며 제주불교를 이끌었다. 일제강점기 내내 대흥사 제주도 포교소의 제주불교 활동 주도에도 불구하고 대흥사 포교소보다 백양사 포교소가 제주도에 더 많이 설치되어 활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1918년 법정사항일운동으로 6년여 제주불교는 활동이 정지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1924년이 되어서야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가 설치되었는데,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설치는 당대 제주불교가 항일이력으로 일제의 통제를 받던 상황을 타개하는 물꼬를 댄다는 의미가 있다.

백양사는 제주도 포교소를 본사에서 지원하였다. 건축비 지원, 포교사 파견과 본사 주지의 방문 등으로 본사는 제주도 포교소 활동을 적

극 지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에 포교소를 둔 다른 본사들과 차별화되는 점이기도 하다.

1936년 한국불교의 흐름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심전개발운동이 실시되고, 백양사도 포교사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강연 활동을 지원하였다. 백양사 포교사들은 1939년 제주불교연맹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심전개발운동에 따른 종교계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제주불교도 사찰 건립과 신도의 증가 및 불교활동 본연의 법회 개설 증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힘을 발휘하였다. 1943년 백양사는 26개 소의 제주도 포교소를 운영하게 되어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포교소를 운영한 본사였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백양사의 제주도 포교소와 포교사의 제주불교 활동 상황을 살펴 본사 백양사의 제주도 불교활동이 근대 제주불교를 부흥시킨 역할을 하였음을 살피고자 한다.

II. 백양사의 제주도 포교소 설치

1. 제주불교의 상황

일제강점기 한국불교는 사찰령에 의해 31본산으로 나뉘어 본사 말사 형태로 존재하였으나 일제강점기 내내 제주도에 본사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사찰은 육지부의 본사에 소속된 제주도 포교소로만 존재하는 양상이다.

일제강점기 동안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道) 소속 행정구역이었다. 1915년 다른 지역과 다르게 도제(島制)가 실시되어 제주 도청(島廳)과 도사(島司)를 두었다. 도사에게는 도령(島令)을 내릴 권한이 있었고 행정, 입법, 치안, 산업 등 분야에서 제주도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

본사 사찰이 지정되지 않은 제주도의 포교소의 지정 및 설치는 제주도 사찰과 본사와의 개별적 인연에 따라 정해지고 있음이 파악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역적 경계로 본사와 말사가 지정 설정되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전라남도 소속이면서도 경상도, 충청도 등지까지 본사를 정하는 상황이 파악되는 걸로 보아 각 사찰의 개별적 인연을 따라 본사를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 제주불교는 1908년 관음사가 창건되며 불교 활동이 제주 지역 사회에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제주불교 승려인 강창규는 죽림사¹⁾에서(1892년), 김석운은 위봉사에서(1894년) 출가하였다. 안봉려관은 대흥사에서(1907년) 출가하였고, 방동화는 강창규와 김석운의 스승인 박만하를 찾아 기림사에서(1913년) 출가하였다. 이들 개별 승려의 인연을 토대로 제주도에는 위봉사, 대흥사, 기림사 등을 본사로 한 제주도 포교소가 설치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보』에 사찰 설치를 신고한 제주도 포교소는 모두 9개의 육지부 본사(기림사, 대흥사, 백양사, 봉은사, 범주사, 선암사, 위봉사, 해인사, 화엄사)의 제주도 포교소로 나오고 있다. 전라남도의 대흥사, 백양사, 선암사, 화엄사의 포교소가 제주도에 설치되었고, 전라북도 위봉사, 경상남도 해인사, 경상북도 기림사, 충청북도 범주사, 서울 봉은사가 포교소를 제주도에 두었다. 이는 본산이 위치한 행정적 지역 경계를 넘어 포교소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의 본말사 현황과 다른 특징이다.

제주도에서 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첫 사찰은 일본 사찰로 제주면 삼도리의 대곡과 본원사 포교소이다.²⁾ 조선사찰로는 관음사가 총독부에 허가를 받은 첫 사찰이다. 대흥사를 본사로 하여 1918년 6월 신고하였

1) 죽림사는 위봉사 말사이다.

2) 『조선총독부 관보』, 제1399호, 1917.4.6.

고,³⁾ 포교담당자는 대흥사의 이화담으로 신고하였다.⁴⁾ 관음사의 허가 이후 1924년까지 6년여 동안 총독부는 제주도 사찰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금순은 1918년 10월 제주법정사향일운동의 여파로 인한 일제의 제주불교 통제 때문인 것으로 연구하고 있다.⁵⁾ 제주법정사향일운동은 서귀포 지역 주민 700여 명이 참여하여 일본인을 제주도에서 축출하겠다는 목적을 격문으로 표명하며 지역 주민을 결집한 제주도의 최초 최대 무장향일운동이었다. 1918년 총독부가 파악한 제주도 사찰이 3개소(관음사, 소림사, 법정사)인⁶⁾ 제주불교 상황에서 일제는 법정사의 향일운동은 곧 제주불교의 향일운동이나 다름없다고 파악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법정사는 관음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이라는 측면에서도 법정사향일운동 때문에 관음사의 활동을 통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1918년 3개의 사찰은 모두 관음사 인물이 활동하는 사찰이었다. 법정사는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이 창건하였고⁷⁾ 제주의병항쟁 주역이었

3) 『조선총독부 관보』, 제1747호, 1918.6.13.

4) 『조선총독부 관보』, 제1936호, 1919.1.23.

5) 제주 법정사 향일운동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2013.

한금순, 『제주법정사향일운동』, 서귀포신문, 2018.

6) 1918년까지 총독부가 파악한 제주도 사찰은 3개소였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는 관음사와 소림사(1918년 측도, 1919년 2월 28일 발행), 법정사(1918년 측도, 1918년 12월 28일 발행)가 기록되어 있다. (한금순,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 기록된 제주도 사찰」, 『제주도연구』 제55집, 제주학회, 2021.), 참조.

7) 안봉려관이 관음사와 법정사를 창건하였다는 근거 기사로는 매일신보 기사 2개가 있다. 「제주도 아미산 봉려암의 기적」(『매일신보』, 1918.3.2.), 「제주도 아미산 봉려관의 기적」(『매일신보』, 1918.3.3.).

1918년에 측도한 조선오만분일 지형도에는 卍자 표시로 법정사가 표시되어 있다.(한금순,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 기록된 제주도 사찰」, 『제주도연구』 제55집, 제주학회, 2021, p.88).

던 관음사의 김석운 등이 창건에 함께 하였다.⁸⁾ 그리고 소림사는 관음사 부속사찰로 활동하였다. 법정사의 승려들은 관음사에서 활동하다 법정사로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강창규는 김석운과 함께 박만하⁹⁾의 제자로 관음사에서 활동하였다. 방동화 또한 박만하의 제자이다. 박만하는 관음사 활동 공적으로 조사전에 모신 인물이다. 방동화는 기림사의 김연일 등을 관음사로 데리고 들어왔고, 이후 1914년경부터 법정사에서 활동하였다. 이렇게 법정사 승려들은 관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승려들이었다. 법정사항일운동으로 일제가 제주불교 활동을 전면 통제하는 것은 법정사 활동 승려들이 곧 관음사 활동 승려라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관음사 주지는 안도월이었음에도¹⁰⁾ 총독부는 1930년까지도 안도월을 관음사 주지로 허가하지 않은 점에서도 일제가 항일이력의 제주불교를 지속적으로 통제하며 관리하고자 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정사항일운동의 여파로 제주불교는 1918년 관음사 이후 1924년까지 더 이상 한 개 소의 사찰도 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불교활동 전반이 통제되었다. 당대 전국적인 사찰 허가 상황과 비교하면 6년여의 공백은 일제의 제주불교 통제 의지를 확고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음사는 1924년 한국불교 이회명에 의지하면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¹¹⁾ 관음사는 제주불교협회를 통하여 불교활동을 추구해보려 부

8) 한금순, 「승려 김석운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 『대각사상』 제19집, 대각사상연구원, p.300.

9) 박만하는 관음사 초창기 활동을 도와 관음사 조사전에 봉안된 인물이다. 박만하의 제주도 제자들은 제주의병항쟁, 제주법정사항일운동에 앞장서는 인물이라는 특징이 있다.(한금순의 앞의 책, 2013. 참조).

10) 안도월을 관음사 주지로 인지하고 있는 자료로는 『매일신보』(1918.3.2.), 『경성일보』(1928.8.8.) 등이 있다.

11) “이러한 상황에서 안봉려관과 안도월 등이 찾은 위기 타개책의 하나는,

단히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일제는 제주불교협회 활동이 부진해지기까지도 관음사 인물들에게 활동의 전권을 주지 않았다. 안도월은 관음사 창건 이후 주지로 계속 활동하였음에도 1930년이 되어야 포교담임자로 허가받을 수 있었다. 백양사의 제주도 활동은 이러한 제주불교 상황을 전제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설치

일제강점기 사찰령의 규정에 따라 조선총독부에 사찰 설치를 신고한 제주도 사찰은 47개소(조선 사찰 44개소, 일본 사찰 3개소)이다.¹²⁾ 행정구역으로 전라남도인 제주도에 지역 경계를 무시하고 전라북도, 경상도, 충청도 등의 조선사찰 9개 본사에서 제주도에 포교소를 설치하였다.

조선사찰로 관음사 이후 제주도에 설립을 허가한 사찰은 백양사 포교소이다. 1924년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 2개소가 총독부에 허가된다.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허가는 1918년 이후 1924년까지 6년여의 공백 이후의 첫 허가이다. 1924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던 이회명에 의지하여 관음사가 활동을 재개하고 있던 시점으로 일제의 문화정치에 의해 제주불교협회가 결성되는 해이기도 하다. 백양사의 제주도 포교소 설치의 일제의 문화정치의 흐름을 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는 제주불교협회와 함께 불교 포교 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되기도 한다.¹³⁾

중앙교단에서 인정하는 위상과 포교사로서 전국적 명성을 두루 갖춘 이회명을 제주에 소개하는 일이었던 것이다.”(이경순, 『이회명과 근대 제주불교』, 『대각사상』 제35집, p.200).

12) 한금순의 앞의 책, p.82.

13) 백양사 포교소인 무관암과 원당사, 만덕사는 제주불교협회와 함께 활동하였다. 다음의 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

「李禪師 巡回布教」, 『매일신보』, 1925.7.1.

본사 백양사는 제주도 중심지인 제주면의 삼양리와 서귀포의 상호리에 제주도 포교소를 설치하고 허가받았다. 제주면 삼양리 포교소는 원당사이고,¹⁴⁾ 우면(1935년 서귀면으로 개칭) 상호리의 포교소는 무관암이다.¹⁵⁾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 원당사는 설치 이후 일 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신도가 육백 명 이상이 되었고, 하시울은 삼양리만이 아니라 포교 지역을 구좌면(현 구좌읍), 정의면(현 성산읍), 동중면(현 표선읍)까지 확대하였고 삼백여 명으로 신도수가 증가하는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인다.¹⁶⁾ 활동 일 년여 만에 삼양 인근 마을인 신촌, 조천, 함덕 등지 유지의 도움으로 법당 개축을 준비하기도 하였다.¹⁷⁾

원당사는 백양사의 재정적 보조와 후원을 받아 설치하였음도 확인된다.

제주 원당포교소 신축 낙성식

대본산 백양사 제주 원당포교소에서는 작년 7월 15일 낙성식을 거행하였다는데 … 중략 … 일반 신도들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누년간 혈성을 다 하여 2천여 원의 건축비를 세우고 본산 보조와 후원을 받아서 … 중략 … 낙성된 바 건축물 크기로는 대흥사 성내 포교소 다음이요 순조선식 범우제로는 제주 각 본산 30여 개의 포교소 중에 효시라는데¹⁸⁾

백양사가 원당사 외에도 제주도의 포교소 법당 건축을 위해 본사에

「제주 특별 봉불식」, 『매일신보』, 1925.6.10.

「제주 육불식 성황」, 『매일신보』, 1935.5.16.

14) “포교소 설치계, 계출년월일: 1924.6.27.”(『조선총독부 관보』, 제3628호, 1924.9.15.).

15) “포교소 설치계, 계출년월일: 1924.8.27.”(『조선총독부 관보』, 제3789호, 1925.4.6.).

16) 「백양사 지부 확장」, 『매일신보』, 1925.1.13.

17) 「제주 원당사 건축」, 『매일신보』, 1925.3.24.

18) 「제주 원당포교소 신축낙성식」, 『불교시보』 제20호, 1937.3.1.

서 지원하고 있었던 상황이 백양사 한림포교소 건축에서도 확인된다. “대본산 백양사 한림포교소에서는 본산 보조를 겸하여 일천오백여 원의 건축비로 낙성”¹⁹⁾하였다.

원당사는 창건 몇 년 사이에 신도가 늘어 법당을 수리해야 할 정도로 확장하기에 이르는 기세를 보여 본사 백양사에서 주지 송종현이 직접 출장 방문하여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원당사 확장

전남 백양사 출장포교소 제주 원당사에서 주임 하시울씨가 성의로 포교에 노력한 결과 신도가 다수에 이르러 체면상 불당을 장엄치 아니치 못하게 되어 금년 하기에 다액의 자금을 투하여 일신히 수리하였고 차후 확장의 기운이 도래함으로 본산에서 송종현 법사가 출장하기로 예정하는 중이라더라.²⁰⁾

백양사는 본사 차원의 재정 지원과 본사 주지의 제주도 방문 등으로 제주도 포교소를 위해 힘을 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백양사는 승려를 제주도에 파견하였다. 원당사를 설치한 하시울 이후 송재술, 이학암 등이 파견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다수의 승려들이 본사 백양사에서 파견됨을 다음 장에서 자세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이는 본사 대흥사의 제주도 포교소와 비교되는 점인데, 관음사의 경우는 제주불교 승려 위주로 활동하는 점과 비교된다.

백양사는 제주도 포교소를 위해 첫째 본사의 제주도 포교소 건축비 지원, 둘째 본사의 포교사 파견, 셋째 본사 주지의 방문 등으로 본사 백양사가 제주도 포교소를 위해 노력하였음이 확인된다.

1924년 백양사 포교소 2개 소의 설치에 제주불교 활동의 새로운 활로 개척이었다. 대흥사 제주포교소 관음사와 비교하였을 때, 백양사가

19) 「제주도 한림포교당 낙성 겸 봉불식」, 『불교시보』 제20호, 1937.3.1.

20) 「원당사 확장」, 『매일신보』, 1927.12.1.

당대 제주불교 상황을 타개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1924년 백양사 포교소 설치 허가 이후 제주도에는 화엄사 포교소(1928년), 위봉사 포교소(1930년), 선암사 포교소(1931년), 법주사 포교소(1932년)가 허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법정사항일운동 이후 일제의 제주불교 통제 상황을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가 타개해 나아가기 시작한 이후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이는 일제의 헌병통치에서 문화정치로 정책이 바뀌면서 점차 불교 활동 토대가 마련되는 흐름의 영향도 있다. 그럼에도 관음사의 활동은 1930년까지 일정한 통제 아래 놓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과 비교해보면 백양사의 활동은 다른 본사의 제주도 활동을 움트게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III.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제주불교 활동

제주불교는 1936년 심전개발운동이 실시된 이후 사찰 설립이 증가하고 불교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24년부터 1935년까지의 활동과 1936년부터 1945년 해방기까지로 나누어 백양사 포교소의 제주도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924년~1935년까지 백양사 포교소의 제주도 활동

본사 백양사의 지원 아래 1924년 설치한 제주도 포교소는 열성적으로 불교활동을 하였다. 원당사는 1931년 전도의 승려를 초빙하여 수록재를 개설하고,²¹⁾ 석가탄신일 봉축식과 법당 낙성식을 개최하였다.²²⁾ 본사에서 파견된 송재술은 원당사 인근에 있는 만덕사의 감원으로도

21) 「제주 원당사 수록재 거행 법당 낙성식 겸행」, 『매일신보』, 1931.3.14.

22) 「제주도 원당사 낙성식 거행」, 『매일신보』, 1931.5.30.

있으면서 불교 승려 교육을 위한 간이강습소 제주불교간강원(簡講院)을 운영하는²³⁾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24년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 설치 이후 활동은 제주도 각지에 사찰 설치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 제주도 사찰 현황(1935년)

연번		허가 연도	본사 명칭	소재지	포교소 수
총	사찰별				
1	1	1918	대흥사	아라리	4
2	2	1926		하원리	
3	3	1930		삼양리	
4	4	1931		고산리	
5	1	1924	백양사	삼양리	6
6	2	1924		상효리	
7	3	1933		고내리	
8	4	1933		회천리 ²⁴⁾	
9	5	1934		동명리	
10	6	1935		함덕리	
11	1	1928	화엄사	하도리	1
12	1	1930	위봉사	금덕리	3
13	2	1930		서일과리	
14	3	1934		고내리	
15	1	1931	선암사	조천리	1
16	1	1932	법주사	조천리	1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1935년까지 설치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23) 「제주불교 간강원(簡講院)」, 『매일신보』, 1935.7.9.

24) 회천리 만덕사는 1912년 마용기가 창건하였고, 1933년 위봉사 회천리 포교당으로 총독부에 신고하였으나, 1934년과 1935년 송재술(백양사)이 감원으로 만덕사를 운영한 기록(『매일신보』, 1935.7.9, 『매일신보』, 1935.5.16)이 있다. 1943년 백양사 포교소로 양도되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5018호). 1968년 회천사로 재창건하였다.(사찰문화연구원,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전통사찰총서21, 2006.).

<표 2>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1935년까지)

연번	허가연도	사찰명	소재지	총독부 포교소 허가 명칭
1	1924	원당사	삼양리	백양사 제주포교소
2	1924	무관암	상효리	백양사 제주포교소
3	1933	보광사	고내리	백양사 고내 포교당
4	1933	만덕사	회천리	*백양사제주포교당 송재술 감원
5	1934	월계사	동명리	백양사 동명리 포교당
6	1935	외곶절	함덕리	백양사 함덕 포교당

근대 제주불교 활동의 중심 사찰은 대홍사 제주포교소 관음사이다. 1924년 제주불교협회 결성을 주도하여 제주불교를 주도하는 활동을 하면서도 1935년까지 대홍사 제주도 포교소 현황을 살펴보면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보다 미흡하다.

<표 3> 대홍사 제주도 포교소(1935년까지)

연번	허가연도	사찰명	소재지	총독부 포교소 허가 명칭
1	1918	관음사	아라리	대홍사 제주도포교소
2	1926	법화사	하원리	대홍사 포교당 산남출장소
3	1930	불탑사	삼양리	대홍사 제주포교소 불탑출장소
4	1931	월성사	고산리	대홍사 제주포교소 고산출장소

또한 총독부의 포교소 허가 명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홍사 포교소는 다른 본사와 다른 점이 파악된다. 대홍사 제주도포교소(관음사) 외의 허가 사찰들의 명칭은 모두 관음사의 ‘출장소’로 허가되는 특징이 있다.

총독부의 제주불교 포교소 허가 상황을 살펴보면, 본사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설치하는 포교소는 ‘본사명+제주포교소’라는 명칭으로 허가하였다. 예를 들면, 대홍사 제주도 포교소, 백양사 제주포교소와 같은 명

칭으로 허가된다. 이어 설치되는 포교소는 ‘본사명+지역명(마을명, ○○리) 포교소’로 허가한다. 예를 들면 ‘위봉사 회천리 포교당(1933년)’, ‘백양사 고내 포교당(1933년)’과 같다.

대부분이 사찰이 위치한 지역명(마을명)을 포교소의 명칭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독 대홍사의 제주 지역 포교소는 ‘대홍사 제주포교소+○○출장소’라고 별도로 명칭을 정하고 있음이 특징으로 파악된다.

즉 대홍사 제주도 포교소는 관음사뿐이고 나머지 3개소는 모두 관음사의 출장소로 허가되었다. 이는 대홍사포교소는 다른 사찰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점이며, 기 허가를 받은 관음사(대홍사 제주도 포교소)의 지역 출장소로만 허가하겠다는 일제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 다른 본사의 포교소들은 해당 지역의 포교소로 독립적인 위상을 부여하고, 그와 달리 대홍사 포교소들은 관음사의 출장소로 그 위상을 규제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점이다. 대홍사포교소에만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대홍사 제주포교소 관음사 관련 인물의 항일 이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승려들의 활동에서도 백양사와 대홍사 제주도 포교소의 활동은 차이가 나타난다. 관음사에는 안봉려관과 안도월, 오이화 등 제주불교 인물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고 반면 백양사 포교소의 승려들은 백양사로부터 파견되어 내려온다는 특징이 있다. 제주불교와 관련이 없던 백양사 승려들이 제주도 활동을 하면서 법정사항일운동으로 통제받고 있던 항일이력의 제주불교와 차별화되면서 백양사 승려들이 관음사 승려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관음사는 1930년대까지 이회명에 의지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백양사 포교소는 본사의 지원으로 관음사와 달리 자유롭게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34년 만덕사는 제주불교 간강원(簡講院)을 설치하고 승려교육을

하였다.

제주불교 간강원(簡講院)

제주읍 회천리 만덕사에서 현재 감원으로 있는 송재술 씨는 절해고도에 서 간난한 생활을 불구하고 불교 자체를 교육키 위하여 객년 7월부터 강사 이학암 씨를 청하여 간이강습소를 개강중이다.²⁵⁾

송재술은 백양사 포교사로 원당사와 만덕사 주지로 활동한 승려이다. 백양사의 이학암을 제주불교간강원으로 초빙하여 승려교육을 하였다. 제주불교에서 승려를 교육하였던 모습은 관음사의 해월학원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²⁶⁾

1935년에는 백양사 포교소인 원당사, 만덕사 및 동명리포교소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설교강연회를 개최하는²⁷⁾ 등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2. 1936년~1945년까지 백양사 포교소의 제주도 활동

1936년은 제주불교에서도 심전개발운동이 실시되기 시작하는 해이다. 심전개발운동의 결과 제주불교는 사찰 설립이 증가하였다고 연구되어 있다.²⁸⁾ 조선총독부는 심전개발운동에 종교계를 활용하여 정신계몽을 하려고 하였으며, 한국불교는 일제가 조선불교를 도시로 진출하게 하고 불교의 융성을 꾀하겠다는 의도에 동조하는²⁹⁾ 등으로 신앙심 함

25) 「제주불교 간강원(簡講院)」, 『매일신보』, 1935.7.9.

26)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자료집』, 2002, p.214.

27) 「제주 육불식 성황」, 『매일신보』, 1935.5.16.

28) 심전개발운동으로 인한 제주불교의 변화 양상을 연구한 논문(한금순,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과 제주불교의 변화」, 『대각사상』 제40집, 대각사상연구원, 2023)을 참조하였다.

29) 「31본산을 단일화 불교를 통제할 방침」, 『조선일보』, 1935.10.9.

양이라는 가치를 통해 불교의 융성을 기대하였고, 대중 강연 기회를 포교 기회로 확보하였다. 한국불교는 “이조 이래 오백여 년 동안 깊은 산층에서만 은둔하고 있던 불교의 세력을 속계로 점점 펼치어서 조선총독부의 심전개발운동에 보조를 맞추어서 한 걸음 더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기로”³⁰⁾ 한다는 인식 속에 심전개발운동에 참여하였다.

심전개발운동이 불교 포교를 위한 활동이라는 취지에서 전국의 본사는 지역의 말사를 대상으로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다. 제주도의 심전개발운동은 1936년 8월 1일 본사 대흥사의 지방 말사 순회포교로 시작되었다. 제주도 관음사와 법화사 등지에서 실시되었다.³¹⁾ 제주도에는 육지부의 본사로부터 포교사가 파견되어 심전개발운동이 추진되었다.³²⁾

종교계의 심전개발 참여로 모든 종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제주불교도 불교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며 1939년 4월 제주불교연맹을 결성하였다.³³⁾ 제주불교연맹은 본사가 다른 제주도내 사찰을 통합하여 구성한 근대 제주불교 활동의 대표단체로 활동하였다. 제주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심전개발을 위한 강연을 실시하였다. 백양사 포교사도 포교부장, 교육부장 등으로 참여하여 제주불교연맹 활동을 주도하였다. 제주불교연맹의 노력은 제주불교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연구되어 있다.³⁴⁾

심전개발운동으로 제주불교에서는 포교의 기회가 확대되어 법화산림

30) 「산중에서 가두로! 불교 31본산을 통합 중앙집권제 수립」, 『조선일보』, 1939.2.2.

31) 「대본산 대흥사 순회포교 상황」, 『불교시보』 제14호, 불교시보사, 1936.9.1, p.8.

32) 한금순의 앞의 논문, 2023.

33) 「제주불교연맹 결성」, 『불교시보』 제47호, 불교시보사, 1939.6.1.

34) 제주불교연맹에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물을 참조하였다.
한금순, 「이일선과 제주불교연맹」, 『정토학연구』 제9집, 한국정토학회, 2006.

한금순의 앞의 책, 2013.

등의 대규모 법회가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불교옹호회 등의 신도회 조직이 활성화되었다. 사찰의 법당 건축과 봉불식 등도 증가하였다.³⁵⁾

본산 대흥사와 백양사의 심전개발운동 시작 상황을 당시 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라남도의 본산 대흥사와 백양사 등 5개 사찰의 1935년 7월 사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을 보면 사찰의 보전, 사찰의 흥륭, 일반인 대상 심전개발을 위한 필요한 방안을 나누는 회의였다.

전남 각 사찰 협의회 개최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조선사찰로 하여금 사상선도의 제1선에 서게 하기 위하여 도내에 있는 5대 본산의 주지회의를 오는 19일에 개최하기 위하여 그 준비에 분망중이리는데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다.

1. 사찰의 존경, 보호 유지(保持)에 관한 지시
 2. 일반 사찰 업무(寺務)상의 주의
 3. 질의 응답
 4. 사찰의 개선 흥륭 및 민가(民家) 심전개발상 필요한 구체적 방책
- 그리고 이제 이 회의에 출석할 사찰은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백양사, 대흥사 등의 주지, 감사, 참사 등이라고 한다.³⁶⁾

이는 전라남도 5대 본산을 대상으로 심전개발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기초적 사안을 전달하는 회의였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1935년 10월 경상남도 3대 본산 종무협회를 통해 “총독부의 심전개발운동의 전면적 전개를 목표로 한 종교의 통제 정책은 불교의 부활과 융성을 도모하는 불교 통제”³⁷⁾라는 의견을 주고 받았음이 확인된다. 총독부는 31본산을 대상으로 ‘심전개발에 참여하는 일이 사찰의 흥륭과 보전에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며 동참을 전파하고

35) 한금순의 앞의 논문, 2023, pp.308-312, 참조.

36) 「전남 각 사찰 협의회 개최」, 『동아일보』, 1935.7.14.

37) 「31본산을 단일화 불교를 통제할 방침」, 『조선일보』, 1935.10.9.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대흥사와 백양사도 본산으로서 총독부의 정책에 1936년 8월에 제주도 포교소에서 심전개발 강연회를 시작하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 참여는 1936년 8월 대흥사가 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전개발 순회포교로 시작되었다.³⁸⁾ 대흥사 문학연이 강사로 “심전개발과 신앙, 심전은 석존의 경작”³⁹⁾ 등의 연제로 불교를 포교하는 심전개발운동을 실시하였다.

백양사도 같은 시기 심전개발운동을 위해 제주도에 포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1936년 8월 22일에 백양사 본산 대표 배성원과 이학암 그리고 대흥사 포교사 문학연과 함께 백양사포교소 원당사에서 심전개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37년에는 이일선이 제주도에 순회포교사로 파견되었고⁴⁰⁾ 1939년에는 이세진이 파견되어 심전개발 운동에 함께 한다.

심전개발운동은 한국불교의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제주불교도 마찬가지로였다.⁴¹⁾ 제주불교는 1939년 4월 제주불교연맹을 결성하여 각각의 본사 산하 제주도 포교소의 활동을 통합하여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불교연맹은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심전개발운동 순회포교를 실시하였다.

제주불교연맹 활동 시기까지의 백양사 포교소 설치 상황을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해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8) 한금순의 앞의 논문(2023)을 참조하였다.

39) 「대본산 대흥사 순회포교 상황」, 『불교시보』 제14호, 불교시보사, 1936.9.1, p.8.

40) 「근하신년」, 『불교시보』 제30호, 1938.1.1. 「이일선 사의 초강」, 『불교시보』 제37호, 1938.8.1.

41) 한금순의 앞의 논문, 2023.

<표 4> 본사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1924~1940년)

연번	허가연도	포교소명	소재지	
1	1924	백양사 제주포교소	제주면 삼양리	
2	1924	백양사 제주포교소	우면 상호리	명칭, 장소 변경
	1935	백양사 서귀포교소	서귀면 서귀리	
3	1933	백양사 고내포교당	신우면 고내리	
4	1933	만덕사	제주읍 회천리	
5	1934	백양사 동명포교소	한림면 동명리	
6	1935	백양사 함덕포교소	조천면 함덕리	
7	1936	백양사 한림포교소	한림면 한림리	
8	1937	백양사 북촌포교소	조천면 북촌리	
9	1937	백양사 토산포교소	표선면 토산리	
10	1938	백양사 제주포교소	제주읍 일도리	
11	1939	백양사 김녕포교소	구좌면 동김녕리	
12	1940	백양사 사계포교소	안덕면 사계리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근대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본섬에 12개 면을 두었다.⁴²⁾ <표 4>의 현황과 같이 1940년 현재 백양사 포교소는 12개소였고, 제주도 본섬의 12개면 중 8개면에 포교소가 설치되었다. 제주도 전역에 골고루 설치하려 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그중 제주도의 중심지인 제주읍에는 3개소, 한림면 2개소, 조천면에 2개소가 설치되었다.

1943년 5월 전라남도 5개 본산 불교혁신회는 백양사가 위봉사의 제주도내 소재 포교당 14개 소를 인수하는 안을 협정 인가하였다.

제주도 포교당의 합병

지난번 전남 5 본산의 불교혁신회를 기하여 대본산 위봉사 주지 유전풍 일(柳田豊一) 화상과 대본산 백양사 주지 만암종헌(曼庵宗憲) 화상이 지난

42) 제주도는 본섬 외에 있는 추자면까지 포함하여 13면이었다.

5월 5일 전북불교연합중교무소에 회합하여 제주도내 소재 위봉사포교당 14여 소⁴³⁾를 백양사로 양도키로 협정 인가하였다고 한다.⁴⁴⁾

일제강점기 동안 위봉사 포교소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위봉사 제주도포교소 설치 신고 현황(조선총독부 관보)

연번	위봉사 포교소 명칭	신고 연도	비고
1	금덕리포교소	1930	
2	서일과리포교소	1930	
3	회천리포교소	1933	동일과리 이전(1943.6.7)
4	고내리포교소	1934	
5	사계리포교소	1935	인성리 이전(1942)
6	상귀리포교소	1936	
7	해안리포교소	1936	
8	도평리포교소	1936	
9	성산리포교소	1937	
10	토산리포교소	1938	
11	한동리포교소	1941	금등리 이전(1942)
12	평대리포교소	1941	
13	하례리포교소	1941	
14	신흥리포교소	1942 이전	*불교시보 기록

<표 5>의 위봉사 포교소 14개소를 백양사가 인수하여, 1943년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는 26개 소가 되었다. 이로써 백양사는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포교소를 운영한 본사가 되었다. 제주도 12개면 중 중문면을 제외⁴⁵⁾한 11개 면에 골고루 포교소를 설치하고 제주도

43) 조선총독부 관보에서는 11개소를 확인할 수 있다.(제4969호, 1943.8.24, 포교소 명칭 변경계).

44) 「제주도 포교당의 합병」, 『불교시보』 제96호, 1943.7.15.

45) 중문면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법정사가 일제에 의해 폐쇄된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중문면에 설치되는 사찰은 일본사찰 본능사

전역에서 활동하는 사찰이 되었다.

<표 6> 본사 백양사의 제주도 포교소 현황(일제강점기)

연번	연도	포교소명	소재지	비고
1	1924 설립	백양사 제주포교소	제주면 삼양리	
2	1924 설립	백양사 서귀포교소	서귀면 서귀리	
3	1933 설립	백양사 고내포교당	신우면 고내리	
4	1933 설립	만덕사	제주읍 회천리	백양사 송재술
5	1934 설립	백양사 동명포교소	한림면 동명리	
6	1935 설립	백양사 함덕포교소	조천면 함덕리	
7	1936 설립	백양사 한림포교소	한림면 한림리	
8	1937 설립	백양사 북촌포교소	조천면 북촌리	
9	1937 설립	백양사 토산포교소	표선면 토산리	
10	1938 설립	백양사 제주포교소	제주읍 일도리	
11	1939 설립	백양사 감녕포교소	구좌면 동감녕리	
12	1940 설립	백양사 사계포교소	안덕면 사계리	
13	1943 양도	백양사 금덕리포교소	신우면 금덕리	
14	1943 양도	백양사 서일과리포교소	대정면 서일과리	
15	1943 양도	백양사 동일과리포교소	대정면 동일과리	
16	1943 양도	백양사 고내리포교소	신우면 고내리	
17	1943 양도	백양사 인성리포교소	대정면 인성리	
18	1943 양도	백양사 상귀리포교소	애월면 상귀리	
19	1943 양도	백양사 해안리포교소	제주읍 해안리	
20	1943 양도	백양사 도평리포교소	제주읍 도평리	
21	1943 양도	백양사 성산리포교소	성산면 성산리	
22	1943 양도	백양사 토산리포교소	표선면 토산리	
23	1943 양도	백양사 금등리포교소	한림면 금등리	
24	1943 양도	백양사 평대리포교소	구좌면 평대리	
25	1943 양도	백양사 하례리포교소	남원면 하례리	
26	1943 양도	백양사 신흥리포교소	남원면 신흥리	

위봉사에서 양도 받음

백양사 제주도포교소 설치 상황을 제주도 지도로 표시해 보면 <그림 1>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⁴⁶⁾

중문포교소(1938년~1941년)와 관음사의 산남출장소(1926년) 그리고 기림사 하원포교당(1940년)이 있다.



〈그림 1〉 백양사 제주도포교소 설치 상황(26개소)

일제강점기 제주도에 포교소를 설치한 조선사찰 본사는 모두 9개 사찰이다. 기림사(4개소), 대흥사(10개소), 백양사(12개소 설치+14개소 인수=26개소), 봉은사(1개소), 법주사(2개소), 선암사(1개소), 위봉사(14개소 설치-14개소 양도=0개소), 해인사(1개소), 화엄사(1개소) 등이다.

백양사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제주도에 포교소를 많이 설치한 본사는 대흥사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제주불교 활동의 중심은 대흥사 제주포교소 관음사이다. 1924년 제주불교협회를 주도하고 1936년부터 심전개발운동을 시작하여 1939년 제주불교연맹 활동을 이끄는 등 제주불교 활동의 중심은 관음사였다. 그럼에도 대흥사 본사가 제주도에 포교소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였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사 대흥사가 제주도에서의 포교 확대에 관심이 없었을까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음사는 창건주부터 대흥사 출가라는 인연을 통해 대흥사를 본사로 삼았다. 그러나 백양사의 경우 본사 주지가 제주도를 방문하여 힘을 실어주고 건축비를 후원해 주는 활동과 비교했을 때 대흥사 본사 주지의 방문과 지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음사도 대흥사로부터 불상과 현금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

46)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제주도지도.

러나 본사 차원의 도움이었는지 관음사 승려 개인의 역할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1924년 관음사 인물들이 이회명에 건당한 것도 대홍사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 원인일 수도 있다.

또한 제주불교의 항일이력 속에는 관음사 관련 승려들이 있는 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관음사 해월학원에서 활동한 김석윤은 1909년 제주의병항쟁 의병장 활동을 하였고,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주역인 강창규, 김연일, 방동화 등도 관음사 활동 승려들이다. 이러한 항일이력에 대홍사 본사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본사 위봉사의 제주도 포교소 설치도 1930년에야 처음 허가된다. 이는 위봉사에서 출가한 김석윤과 강창규의 항일이력의 영향이었을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⁴⁷⁾

반면 제주불교의 항일이력과 무관한 백양사는 1924년부터 제주도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대홍사 대비 활동이 자유로웠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IV. 백양사 포교사의 제주불교 활동

심전개발운동이 실시되면서 백양사는 포교사들을 제주도에 계속 파견하여 제주도 활동을 지원하였고 이들은 제주불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활동하였다. 하시율, 송재술, 이학암, 배성원, 이감용, 이일선, 이세진 등이 백양사에서 파견한 제주도 활동 승려이다. 포교사들이 주로 본사에서 파견되어 오는 모습은 대홍사 제주도 포교소가 제주불교 인물 주축으로 활동하는 것과 비교되기도 한다.

47) 한금순의 앞의 책, 2013.

1. 포교소 건립 활동 포교사

1924년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첫 포교사는 하시울이다. 제주면 삼양리에 원당사를 설립한 하시울은 제주도의 동쪽 지역인 구좌면, 정의면, 동중면에 걸쳐 포교하여 신도의 증가를 가져왔고,⁴⁸⁾ 활동의 증가로 법당을 개축하고, 사찰 설치 이후 일 년여 만에 봉불식에 사백여 명이 참석하는 상황을 이끄는 등으로 제주불교를 활성화하는 기초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⁴⁹⁾

송재술은 하시울을 이어 원당사를 맡아 활동하였고, 인근의 만덕사까지 함께 운영하며 1934년부터 제주불교간강원(簡講院)을 설치하여 이학암 포교사를 초청 승려교육을 실시하였다.⁵⁰⁾ 하시울과 송재술의 활동은 제주도 전역에 백양사 포교소를 설치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백양사 포교소의 증가 현황은 초창기 하시울과 송재술의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외에도 이감용, 김영렬, 이창석 등이 백양사 한림 포교소, 북촌 포교소, 토산 포교소, 함덕 포교소, 고내 포교소 등지에서 포교소 건립 활동에 힘을 보탠 승려들이다.

2. 심전개발운동 포교사

백양사가 심전개발운동 시기 제주도에 파견한 포교사는 배성원, 김해운, 이일선, 이세진, 김영렬, 이창석 등이다. 물론 1936년 이전 제주도 활동을 하던 송재술, 이학암, 이감용 등도 함께 활동하였다. 심전개발운동은 한국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활동의 확산을 가져왔고, 백양사 포

48) 「백양사 지부 확장」, 『매일신보』, 1925.1.13.

49) 「제주 특별 봉불식」, 『매일신보』, 1925.6.10.

50) 「제주불교 간강원(簡講院)」, 『매일신보』, 1935.7.9.

교사의 제주도 활동으로 제주불교도 종교활동이 왕성해지고 사찰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백양사의 제주도 활동은 제주불교의 불사 양상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백양사 서귀포 포교소에 개설한 법화산림에는 백양사 포교사 김해운과 송재술, 이학암과 대흥사 포교사인 문학연과 법주사 포교사 최청산이 불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법화산림은 7일 동안 설교와 강연이 있었고 매일 삼, 사백 명씩 출석하는 성황을 이루며 불교 활동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⁵¹⁾ 이는 심전개발운동 시기에 들어서야 실시되는 제주불교 불사의 변화 모습이기도 하다.

백양사는 1936년 8월 백양사 대표로 배성원을 파견하였고 백양사 포교사 이학암과 함께 심전개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⁵²⁾ 배성원은 백양사 승려로 이형옥, 김봉수 등 백양사 본말사 청년 승려 20여 명과 철우회를 결성하여 불교 개혁 활동을 하였고,⁵³⁾ 1931년 조선불교청년총동맹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어 백양사 주지 송중헌⁵⁴⁾은 이일선과 이세진을 포교사로 파견하였다. 이일선과 이세진은 이후 해방 이후까지 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하는 포교사로 제주도에서 활동하였다.

이일선은 백양사에서 불교중앙학림에 유학시켰다. 1920년 불교중앙학림 학생들로 구성된 조선불교청년회 활동으로 이회광 주도로 일본 임제종과 한국불교를 병합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활동과 사찰령 철폐를 위한 건백서를 총독부에 제출하는 등 친일불교에 저항하며 전통 불교 수호와 혁신을 위해 활동하였다.⁵⁵⁾ 조선일보에 「조선불교청년제

51) 「제주 서귀포 백양사포교당 법화산림 대성황」, 『불교시보』 제21호, 1937.4.1.

52) 「제주불교강연 원당사에서」, 『매일신보』, 1936.8.26.

53) 「철우회(鐵牛會)를 창립 불교계개혁을 목적」, 『동아일보』, 1925.8.11.

54) 송중헌은 백양사의 만암 스님으로 한용운 박한영과 함께 임제종 운동에 참여하였다. 백양사는 식민지 불교로부터 탈피하는 불교정화를 추진하였다. 김광식, 「고불총림과 불교청와」,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참조.

군에게」라는 글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과 세계적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선불교청년회가 변혁의 시대에 불교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⁵⁶⁾

이일선은 송중헌에게 법맥을 상속받은 제자이다.⁵⁷⁾ 송중헌은 1911년 한용운, 박한영, 백용성과 원종이 일본불교 조동종과 연합하려던 계획을 좌절시켰던 임계동 운동의 활동으로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일선은 중앙학림에서 한용운과 박한영의 제자로 공부하였다. 백용성과 함께 3.1운동 33인으로 중앙학림 학생들을 만세운동으로 이끈 한용운은 중앙학림 강사와 조선불교청년회 활동으로 이일선과 인연이 있다. 박한영은 백양사와 불교중앙학림, 조선불교청년회 활동을 통해 이일선과 인연이 있다.⁵⁸⁾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이일선은 백양사와 용흥사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계몽운동에 참여한다. 조선인 중심의 교육 개혁, 노동과 여성운동 후원, 신앙 자유, 타협적 민족운동 배척을 내세운 전남청년대회에 참여하였고, 담양노동청년회 활동,⁵⁹⁾ 장성군 북하면 단연회 활동 등 승려이면서도 호남지역의 사회적 현안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농촌계몽을 위해 활동하였다.

이일선은 1937년에 본사 백양사 주지 송중헌이 제주도에 백양사 포교사로 파견하였다. 백양사 지방 포교소의 심전개발운동을 위해 파견하

55) 김광식, 「조선불교청년회의 사적 고찰」,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56) 한금순, 「이일선과 제주불교연맹」, 『정토학연구』 제9집, 한국정토학회, 2006, p.310-318.

57) 「백양사 법맥 상속식」, 『조선일보』, 1924.4.25.

58) 한금순의 앞의 논문, 2006, p.304.

59) 담양노동청년회는 조선청년총동맹 가입단체이다.(「점증하는 청춘가맹단」, 『동아일보』, 1925.6.17.). 조선청년총동맹은 전국에 223개 단체가 가맹한 조직이었다. 청년민중의 단결, 청년운동의 통일, 대중 본위의 신사회건설, 조선민중해방운동의 선구를 주장하였다.(「조선청년총동맹」, 『조선일보』, 1924.4.24).

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양사의 제주포교소, 서귀포 정방포교소 및 일도리 정광사 등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1938년 7월 서귀포 정방포교소 이일선은 서귀면 보목리 동창학우회 주최로 마련된 “심전개발을 주지로 불교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강연을 실시한 기록이 남아있다.⁶⁰⁾ 1939년 제주불교연맹에 포교부장으로 참여하여 “심전개발과 불교, 사변과 불교, 현사회의 동향과 불교” 등의 강연을 하며 제주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불교연맹 활동을 주도하였다.

심전개발운동으로 제주불교는 포교의 기회가 확대되어 사찰의 범당 건축과 봉불식 등이 증가하였으며, 법화산림 등의 대규모 법회가 마련되었고, 신도회 조직이 활성화되는 등으로 “제주불교 신앙 활동의 활성화와 활동의 대형화 및 조직화”⁶¹⁾되었다. 이일선 등 백양사 포교사의 활동은 심전개발운동 시기 제주불교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1945년 12월 2~3일 조선불교혁신 제주도승려대회가 이일선을 준비위원장으로 하여 개최되었다.⁶²⁾ 제주도승려대회는 일제강점기 총독정치의 제약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 해방의 시대에서 신앙의 자유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단의 변혁에 함께 하고 건국정신에 발맞추어 조선의 불교를 재건하는데에 동참하겠다고 표명하였다.⁶³⁾ 제주도승려대회는 제주도 전역의 사찰이 동참하였고, 근대 제주불교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 교무원을 결성해내어 제주불교의 독자적 기구를 결성하는 성과를 만들기도 하였다.

60) 「이일선 사의 초강」, 『불교시보』 제37호, 불교시보사, 1938.8.1.

61) 한금순의 앞의 논문, 2023, p.312.

62) 한금순,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활동」, 『대각사상』 제31집, 대각사상연구원, 2019.
《법계》는 제주도승려대회의 기록이다.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에 재수록되어 있다.

63) 출처 : 《법계》(위의 책).

이일선은 제주도승려대회 이후 해방기 제주도 사회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청년기 이일선의 행보를 잇는 사회참여 활동이다. 이일선은 1947년 제주도의 3·1절 기념식을 위해 ‘3·1투쟁 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 준비위원회 선전동원부⁶⁴⁾에 소속하여 참여하였다. 이일선은 행사를 주도한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 의장단에 선출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였고, 전국적 흐름과 같이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실천을 주장하는 활동을 하였다.

제주도 민전이 주최한 3·1절 기념식은 경찰의 시위 주민 사살로 제주 4·3항쟁으로 연결되어 버렸다. 이일선은 백양사 일도리 포교소에서 토벌대에 끌려나가 산지 바다에 수장되어 1950년 생을 마감하였다.

백양사 승려 이세진은⁶⁵⁾ 1939년 2월 본사 백양사 주지 송중헌이 백양사 한림포교소 포교담당자로 파견하였다. 이일선과 마찬가지로 심전개발운동 시기 백양사가 제주도에 파견한 포교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세진의 사미계사는 김봉수이다.⁶⁶⁾ 김봉수는 백양사 승려로 이일선과 함께 불교중앙학림에서 공부하였고 조선불교청년회 백양지회 활동을 한 승려이다. 내장선원에서 백학명에게, 대원강원에서 박한영에게

64)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p.281.

65) 이세진: 내장사에서 한고벽을 스승으로 출가, 백양사에서 비구계 수지, 대원강원 이수, 표훈사 중향강원 강주.(한금실, 「이세진(1910~1949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연구」, 제주대학교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 : 조선총독부관보 불교관련 자료집』 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1, p.944, p.948.

66) 김봉수는 백양사에서 경성에 유학 보낸 학생으로, 이일선과 함께 조선불교청년회 활동(「불교청년 백양지회」, 『동아일보』, 1920.9.6.), 호남학생순강단 활동(「불교유학생 강연회」, 『동아일보』, 1921.8.9.) 등을 같이 하였다. 유심학우회에서 지육부 부원(「유심학우회총회」, 『동아일보』, 1921.10.22.), 조선불교청년회 전국순회강연(「조선불교청년순회강연」, 『동아일보』, 1922.7.1.)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백양사 말사 내소사 주지로 부임하여 내소사 자장암 신명야학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수학하였고, 백양사에서 대선법계 등을 품수받았다. 내장선원과 중향강원 강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세진은 1939년 제주불교연맹 활동에 교육부장으로 참여하여 이일선과 함께 전도 순회강연에서 “가정교육과 신앙, 자연과 인생, 시심마(是心麼), 아시하수(我是何誰)” 등의 강연을 하였다. 제주강원 강사로 50여 명의 후학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서관음사에서 승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와공장을 운영하며 새로운 승가를 추진하였다.

해방 이후 이일선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사회 현실에 참여하여 제주 4·3항쟁 당시 입산하여 무장대 도당사령부에서 활동하였다. 관음사 포교당인 대각사에 은신하였다가 잡혀 나가 1949년 7월 총살되었다.

심전개발운동기 백양사 포교사들은 대흥사, 기림사 등의 포교사와 함께 활동하다가, 본사가 없는 제주불교 상황에서 제주불교연맹을 구성하여 통일된 활동을 하였다. 연맹의 주요 임원으로 송재술이 참여하였고, 포교부장 이일선, 교육부장 이세진이 참여하였다. 이일선은 포교부장으로 제주도 전역을 상대로 순회포교를 주도하였다. 19회의 강연 활동에서 이일선은 14회 강연 이세진은 6회의 강연을 실시하였다. 제주불교연맹의 노력으로 제주불교가 활성화되었다. 사찰과 승려, 신도 수가 증가하였고, 전통불교 사상과 의례를 확산하기 위한 법회가 다수 마련되기도 하였다. 물론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전반적 시대적 양상과 마찬가지로 심전개발운동 참여는 일제 정책하의 활동으로 국방헌금과 승리기원 법회와 위령제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백양사 포교사들은 해방 이후까지 제주도에서 활동을 이어가는데 반하여 심전개발운동으로 내려온 대흥사 포교사들은 점차 제주도를 떠나가는 것도 특징으로 파악된다.

V.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제주불교 활동의 의의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제주불교 활동의 의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활동은 항일이력으로 인해 불교활동이 멈추어 있던 1920년대 초반 제주불교의 상황을 타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1924년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 2개 소의 설치는 1918년 이후 6년여의 제주불교 통제 상황을 타개하고 비로소 불교활동의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당시 제주도의 총독부 허가 조선사찰은 관음사 1개소뿐이었던 상황 속에서 백양사 포교소 설치 이후 급속도로 수백 명의 신도 증가와 법당의 확장이라는 결과를 보일 정도로 제주불교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백양사는 본사에서 건축을 위한 후원과 승려의 파견 그리고 본사 주지의 방문 등으로 제주도 포교 활동을 위해 노력하였다. 본사의 이러한 활동은 근대 제주불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심전개발운동기 백양사는 제주도 사찰의 증가와 법회, 산림 개설 등의 불교활동의 증가로 제주불교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1936년부터 제주도에서의 심전개발운동에 백양사 포교사들이 파견되었다. 1939년 제주불교연맹을 결성하여 통일된 활동을 하는 데에 백양사 포교사들이 기여하였다. 제주불교연맹에서 백양사 포교사들은 포교부장, 교육부장 등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심전개발운동 시기 제주불교는 상당한 확장을 이루었다. 사찰이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전에 없던 산림의 개설과 같은 대규모의 불교활동이 자주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백양사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포교소를 설치한 본산이 되었다. 1943년 백양사는 위봉사로부터 14개소의 포교소를 양도받아 26개 포교소로 제주도 전체 지역에 불교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해방 이후에도 백양사 포교사들은 제주도 활동을 이어가며 불교를 혁신하고자 활동하였다.

이일선은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를 준비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친일을 반성하고 새로운 불교활동을 위해 노력하였다. 승려대회는 제주도 전체 사찰이 참여하여 대처식육을 금지하는 등의 사찰 정화, 전통불교 의식을 되찾는 수행 방안 확립, 중앙교무원에 소속하여 한국불교 활동으로 나아가는 일 등을 계획하였고, 일제강점기 동안 없었던 제주교무원을 구성해내었다.

넷째,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사회참여 활동은 제주 사회에 큰 기여를 하였다.

백양사 포교사들은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 현안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백양사 승려 이일선과 이세진은 해방 직후 제주4.3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제주4.3항쟁은 전체 제주도의 일이었다고 제주도민 모두의 일이었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이일선은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공동의장으로 이세진은 무장대 지휘부로 제주 4·3항쟁 속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제주 4·3항쟁은 미군정과 정부에 저항하는 활동으로 간주되어 제주도민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다. 제주불교 승려들의 활동은 제주도민의 당대 상황과 마찬가지로 토벌대의 위력 아래 제주불교에 커다란 피해를 남기게 되었다. 제주 4·3 시기 활동 사찰 80개 사찰 중 70%인 56개 사찰이 전소, 일부 소각, 파옥, 강탈, 폐사의 형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승려는 16명이 총살, 수장 등으로 희생되었다. 무엇보다 제주불교 활동 승려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제주사회 참여 활동으로 인한 희생은 이후 제주불교 현대사에 큰 빈자리로 작용하였다.

VI. 맺음말

백양사는 일제강점기 제주도에 가장 많은 포교소인 26개 사찰을 설치하고 활동했던 본사 사찰이다. 제주도에선 일제 사찰령에 의한 본사 사찰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남도에도 속했으나 제주도에선 지역 경계를 무시하고 육지부의 여러 본사에서 포교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1924년까지 총독부의 설치허가를 받은 조선사찰은 관음사뿐이었던 제주불교에 1924년 백양사 포교소 2개 소의 설치에 당시 제주불교의 새로운 활로였다. 관음사는 1930년까지 항일이력으로 통제받는 상황이었으며, 백양사는 제주도 여러 지역에 포교소를 설치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백양사 제주포교소 원당사의 경우 설립 이후 급속도로 신도 증가와 법당이 확장되는 모습은 일제의 제주불교 통제를 타개해 나가는 정도의 성과를 보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의 설치에 일제의 문화정치의 흐름 속에 있기도 하지만, 본사 백양사가 제주도 포교소를 위해 건축비 지원, 포교사 파견, 본사 주지의 방문 등 여러 가지 노력에 힘입은 바이기도 하다.

심전개발운동기에는 본사에서 포교사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강연 활동을 지원하였다. 백양사 포교사들은 1939년 제주불교연맹 활동에 참여하여 제주불교 활동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었다. 1943년 26개 소의 제주도 포교소로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선 가장 많은 포교소를 운영하는 본사 사찰이었다. 백양사의 제주도 활동은 근대 제주불교를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백양사 포교사들은 제주4.3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체 70% 사찰이 불태워지고 폐사되는 등의 피해 속에서 총살, 수장 등의 피해로 현대 제주불교의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백양사는 일제강점기 가장 많은 포교소를 제주도에 설치하고 활동하였지만 제주 4·3항쟁으로 인한 사찰피해와 승려의 피해로 인해 활동근거지와 동력을 잃어버렸다. 한국전쟁으로 한국불교는 1954년부터 불교정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태고종의 독립을 거쳐 분쟁의 시기로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제주불교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 백양사가 제주도 사찰 관리에 힘을 발휘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갔던 것 같다.

제주불교는 제주교무원, 제주교구종무원을 구성하여 활동하다가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 23교구가 제주도에 구성되면서 관음사를 본사로 재편되었고, 점차 백양사 제주도 포교소는 소유권을 양도해 나가면서 제주도 말사 활동을 접어나갔다.

참고문헌

1. 자료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자료집』, 2002.

『불교시보』, 민족사 영인본

2. 저서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1996.

_____,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 : 조선총독부관보 불교
관련자료집』 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1.

사찰문화연구원,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전통사찰총서 21, 2006.

이즈미 세이치, 김종철 옮김, 『제주도』, 여름언덕, 2014.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2013.

_____, 『제주법정사향일운동』, 서귀포신문, 2018.

3. 논문

김경집, 「일제강점기 한국에 진출한 일본불교의 종파별 교세현황에 대한 연
구」, 『보조사상』 제65집, 보조사상연구원, 2023.

김광식, 「조선불교청년회의 사적 고찰」,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_____, 「중앙학림과 식민지불교의 근대성」, 『사학연구』 제71호, 한국사학회,
2003.

류승주,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조선불교유신론-한용운의 불교적 사회진화론-」,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1집, 2009.

이경순, 「이회명과 근대 제주불교」, 『대각사상』 제35집, 2021.

이기운, 「근대기 승가의 교육체제 변혁과 자주화운동」, 『불교학보』 제48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08.

한금순, 「이일선과 제주불교연맹」, 『정토학연구』 제9집, 한국정토학회, 2006.

_____, 「승려 김석운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주의의 사상적 섭렵」, 『대각사상』
제19집, 대각사상연구원, 2013.

- _____,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활동」, 『대각사상』 제31집, 2019.
- _____,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 기록된 제주도 사찰」, 『제주도연구』 제55집, 제주학회, 2021.
- _____, 「제주불교의 심전개발운동과 제주불교의 변화」, 『대각사상』 제40집, 대각사상연구원, 2023.
- 한금실, 「이세진(1910~1949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연구」, 제주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4. 기타

- 『동아일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조선일보』,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매일신보』, 국립중앙도서관
- 『경성일보』, 국립중앙도서관
- 『조선총독부 관보』, 국립중앙도서관
- 『국토지리정보원』

Abstract

Baekyang Temple's Buddhist Engagements in Jeju and its Significa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n, Geum-soon
(Jeju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the 31 head Buddhist temples in Korea established their mission stations in Jeju province. Baekyangsa Temple was the representative temple that established 26 mission stations and operated actively in Jeju. Unlike the general trend, where each mission station was established based on its administrative division, mission stations in Jeju, which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Jeollanam-do, were established by head temples from other regions such as Gyeongsang-do and Chungcheong-do.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Mission Station by Baekyangsa Temple in 1924 signified the resumption of Buddhist activities, which had been halted for about six years due to Japanese control following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Jeju launched by Beopjeongsa Temple in 1918. After the establishment of mission stations such as Wondangsa Temple and Mugwanam Temple under Baekyangsa Temple in 1924, Baekyangsa Temple, as the head temple, actively supported mission activities on Jeju Island by providing construction funds for mission stations, dispatching missionaries, and having the head monk of the temple visit the mission stations on Jeju. Consequently, the number of believers increased rapidly, Buddhist activities increased, and Baekyangsa Temple mission stations increased throughout Jeju Island.

During the period of the Shimjeon Development Movement in 1936, Baekyangsa Temple dispatched missionaries to Jeju Island to support lecture

activities. Missionaries from Baekyangsa Temple, such as Ilseon Le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of the Jeju Buddhist Federation in 1939, leading to the revitalization of modern Jeju Buddhis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emples, an increase in believers, and the expansion of Buddhist services.

By 1943, Baekyangsa Temple operated mission stations in 26 temples on Jeju Island, located in 11 out of 12 myeon divisions in Jeju. The activity of Baekyangsa Temple's mission stations on Jeju Island was an achievement in revitalizing modern Jeju Buddhism.

Key words

Jeju Mission Station by Baekyangsa Temple, Jeju Mission Station by Daeheungsa Temple, Wondangsa Temple, Gwaneumsa Temple, and Mugwanam Temple, Shimjeon Development Movement in Jeju, Missionary from Baekyangsa Temple, Jongheon Song, Ilseon Lee, Revitalization of modern Jeju Buddhism